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③]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¹⁾

2015.10.30 | 배지영_독일 오스나브뤼크대 사회학 박사과정 | baejee07@gmail.com

독일 대도시 중 하나인 하노버시에 30년 역사를 지닌 마더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마더센터의 20년을 정리한 보고서를 읽으며 품었던 운영구조, 재정 문제, 참여자, 활동,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등 여러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30년 동안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며 성장해온 마더센터. 현재 모습을 보고 듣게 된 점은 이에 관심을 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이자 독일 오스나브뤼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지영 연구자의 도움으로 현지 마더센터 탐방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원래 오스나브뤼크(Osnabrueck) 마더센터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센터를 물색했다. 마침 독일의 대도시 중 하나인 하노버(Hannover)시에 30년 역사를 지닌 마더센터와 연락이 닿아 센터 대표와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독일 마더센터의 모습을 보고 듣게 된 점은 본 연구와 마더센터를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30년 역사, 하노버시 마더센터 방문

인터뷰를 위해 마더센터를 방문한 날은 독일 날씨가 으레 그렇듯 비가 내리는 짜늘한 날씨였다. 초행길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고, 생각보다 30분 일찍 마더센터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걸 중시하는 독일 문화라, 잠시 밖에서 원고에 필요한 사진을 찍으며 기다릴 생각이었다. 주거지에 자리한 마더센터는 건물

1) 본 연구는 배지영(독일 오스나브뤼크대 사회학 박사과정) 연구자가 2015년 10월 14일 하노버시 마더센터에 방문해 대표와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사전 질문 구성과 최종 글 정리는 최정은 새사연 연구원이 맡았다.



입구로 들어가면 사각형 모양의 집들이 모여 있고, 건물들이 마주한 내부에 작은 정원이 있다.

약속시간보다 좀 이른 시간이라 추운 날씨에도 정원이 있는 건물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한 여성이 손을 흔들며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너무 기쁜 마음에 마더센터 사무실 입구로 걸어갔더니, 그녀는 ‘이런 추운날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녀가 바로 마더센터 대표인 하이케 아이켈베르그-보테(Heike Eickelberg-Bothe)였다. 마더센터에서 27년간 활동한 하이케 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당사자로, 마음도 따뜻하고 열정도 가득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선 공간은 마치 공동 거실 같았다. 넓은 공간에 넓은 책상(식탁 용도로도 사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늦은 아침식사를 나누는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사무실²⁾에서 한 시간 반 동안 하노버시 마더센터의 지난 30여 년의 역사를 여행할 수 있었다.

그림 1. 하노버시 마더센터 활동가와 입구



첫 출발

하노버시 마더센터는 1985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추운 겨울 아이들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날 공간을 찾을 요량이었다. 그때 마침 마더센터 설립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타 도시에 세워진 센터의 설립 과정을 조사하게 되었다. 하노버시에도 마더센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신념으로 우선은 사비를 모아

2)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홈페이지 <http://www.muetterzentrum-mgh-doehren.de>, 주소 Mütterzentrum, Querstraße 22, 30519 Hannover



센터로 사용할 집을 임대했다. 설립자들은 어디에서 운영 지원을 받을지도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각자 출연금을 내고, 참여자들이 낸 돈과 후원금으로 운영했다. 다행히 이후에 하노버시 및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에서도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세와 전기세 및 각종 세금만 충당할 수 있는 지원금 정도였다.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주된 활동은 요리다. 아침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오후에는 커피시간도 가졌다. 설립 초기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육아만 하고 있던 터라 센터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다. 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열었다. 여성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잦은 모임을 계기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집밖에서 활동하는 걸 원치 않고, 이를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공유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마더센터에 모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들 스스로가 남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존재임을 알리는 등 기존 통념도 바꿔놓았다. 1980년대 독일에서는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활동으로 마더센터는 여성들의 관심사에 맞춰 강좌를 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재정 자립까지 발로 뚫은 4년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립자들은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먼저 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정 정치인을 찾아가 마더센터의 설립 목적과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한명씩 설득해갔다. 그렇게 발로 뛰며 노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4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 결과 하노버시가 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정지원을 시작했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물론 처음에 개인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던 것보다는 큰 발전이었죠. 1990년 당시 시로부터 받은 1년 예산은 5000~6000마르크(유로화 이전의 독일 화폐)였어요. 차츰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7000마르크까지 되긴 했죠. 그럼에도 이 지원은 공간 운영을 위한 비용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다른 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모아야 했죠.”

그러다가 마더센터는 정부와 EU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여러 세대의 집 (Mehrgenerationshaus)’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EU의 협력은 2013년까지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독일 가족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 지원을 통해서 1년에 약 4만유로(한화 약5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운영비의 절반은 인건비로, 마더센터 대표자가 시간제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다. 나머지 절반은 운영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마더센터의 재정은 차츰 해결되어 가고, 동시에 사회적 위상도 확대되었다.

“마더센터가 ‘여러 세대의 집’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였어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완전히 새로운 활동은 아니었죠. 1989년 센터 차원에서 해오던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이 정부가 주체하는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더불어 센터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림 2. ‘여러 세대의 집’ 사업 간판과 내부 활동 게시판



마더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부 지원 운영비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한다.

“대표자인 저만 시간제로 일하며 임금을 받아요. 앞서 말한 대로 4만유로의 절반인 2만유로가 운영비로 확보되어 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하는 집세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는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외 비용은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더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회비는 받지 않는다. 센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인데다 센터의 존립 목적이 그들을 돕는데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한다. 성별이나 연령,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온다. 예를 들면, 이력서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센터를 방문해 자원 활동가의 도움으로 이력서를 쓰기도 한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도 오면 돕는다. 부부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센터를 들른다. 마더센터에서는 각자의 어려움을 꺼낼 수 있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아침엔 타인, 점심엔 친구, 저녁엔 가족’ 이 되는 활동

하노버시 마더센터는 ‘아침엔 타인, 점심엔 친구 그리고 저녁엔 가족’이 되는 센터(Morgens Fremde, mittags Freunde, abends ein Zweck der Familie)라는 기치로 시작되었다. 주요 활동은 2007년부터 독일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산하의 ‘여러 세대의 집(Mehrgenerationenhaus)’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하노버시의 많은 사람들(나이가 다른 여러 세대 및 다양한 사회 계층)을 지원하게 되었다. 주로 세대의 통합(아동,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년층, 특히 젊은 노년층과 도움이 필요한 노년층), 세대를 통합하는 프로그램, 아동돌봄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적 유대 형성, 지역사회에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경제와 연대 활동, 카페나 간이식당을 통한 만남의 장소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센터가 지속하는 일 중의 하나가 아침식사 서비스다. 또 매 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 신청서를 가족부에 제출하는 일도 한다. 만일 센터가 정부 사업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주된 사업은 ‘여러 세대의 집’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밖의 활동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활동과 사업을 계획하면 많은 일들을 다른 활동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미 ‘여러 세대의 집’ 사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른 활동에 집중할 여유가 없긴 해요.”

시기마다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면 참여와 조직화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난민이다. 센터도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된 생활을 찾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살피고 준비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 연대한 지원 체계도 고민하고 있다. 그 첫 걸음으로 난민들이 머물 집이나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간이 마련된다면 난민들을 위한 독일어 수업, 아이들의 놀 공간,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마련해 도우려고 한다. 센터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타 단체와 협력해 연결해준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예전에 센터에서 15명의 아이들을 돌보려고 했으나, 센터 공간이 법적으로 10명의 아이들만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역 유치원과 연대해서 15명의 아이들을 그곳에 보냈고, 지금도 아이들이 이용한다. 현재 센터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지만, 많은 여성들이 아동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면 다시 제공하고 싶다. 그러나 요즘 들어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림 3. 놀이방과 모임테이블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출산율도 많이 줄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여성들은 센터에 오는 것보다 카페와 같은 곳에 앉아 라테마키아또 한잔을 마시며 기쁨을 누리거나 남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죠. 많은 여성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센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산적한 과제들도 많다. 혼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정문제가 있는 사람들 등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센터를 찾는다. 센터는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요. 어디에서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몰라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을 해결해줘요. 대략 2년 전 쯤 인가, 2명의 여성이 오후에 센터에 무작정 찾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들은 집안 문제로 집을 나오고 싶다고 했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고,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저희는 바로 그들을 위해 여러 단체에 전화를 걸었고, 전문적으로 그들을 도와 줄 단체를 연결해 줬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누군가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해요. 그들을 돕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

마더센터는 2주에 한 번 정기모임을 하나, 의무는 아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 활동을 준비하거나 해야 할 때 자연스럽게 모임을 꾸린다. 센터의 장점은 면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상담을 위해 전화해 면담시간을 정해 날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도움이 필요하고, 이야기 나누려면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센터 활동가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사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운영되는 것처럼 들릴 진 모르나, 적어도 올해 12월이 되면 하노버시 마더센터는 30주년을 맞아요. 이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이 운영 방식이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센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센터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온다. 단순 방문자도 있고, 활동에 참여하려고 오기도 한다. 이 많은 여성들이 모이면 당연히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다. 형편이 좀 넉넉한 여성들도 있고, 가난한 여성들도 있다. 개인 빈부격차로 상대를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기도 해 감정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발생하는 문제들로 마더센터도 똑같이 안고 있다. 그럴 때면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를 하며 풀고자 노력한다.

“저희 사무실에 ‘대화는 서로를 돕는다(Reden hilft)’ 라는 문구가 있어요. 서로 불편할 때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문제를 풀자는 것이죠. 갈등으로 더 이상 센터를 오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해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활동하는 거거든요.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왔어요.”



초창기 활동가도 참여

초기 설립자들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심지어 초창기 아동돌봄서비스를 받던 아이가 성장해 지금은 자원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센터와 함께 성장한 셈이다. 또 오랫동안 센터와 함께 한 한 여성은 정년퇴임을 하고 오후가 되면 이곳을 방문한다. 그녀는 7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일 오후 만남을 이끌고 있다. 이렇듯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심리학, 사회복지, 교육학 등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갖지는 않았다. 만일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제대로 돈 벌 직업을 구했을 거다.

“저희 센터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일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 센터에 오기도 하죠. 시간제로 일하는 대표인 저를 제외하고 임금을 줄 수 없다보니 각자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요.”

마더센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하르츠피어(Hartz4, 독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³⁾ 수급자들과 함께한다. 지난번에는 일자리센터(jobcenter)⁴⁾에서 보낸 수급자들과 일하기도 했다. 이들은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업훈련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수급자들은 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나 가사도우미 일 등을 하며 경험을 쌓고, 센터는 그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수급자 중 한 분이 센터에 계속 머무르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분은 자신도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행복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해요. 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3) ‘하르츠 피어’는 독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 제도의 수급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와 같다.

4) 일자리센터(jobcenter)는 하르츠 피어의 수급자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말한다. 일자리 센터에 수급자들이 오면,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즉, 다양한 노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동부 산하의 연계 기관이다.



여기에서 기억해야할 중요한 지점이 있다. 처음에 서로 소통이 원활한 7명의 여성들이 이 센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좋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센터 안에 존재했기에 지금과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센터를 떠나기도 했지만, 2~3명이 센터에 계속 남아 친한 사람들을 다시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끈다.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계속 커지듯,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참여시켰고,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기반에서 센터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 앞서 말했듯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센터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

“저희가 어떤 매뉴얼 책을 갖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혹은 동료에게 참고하라고 전해줬다면, 아마 그것을 통해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왔을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가슴으로 일을 하고자 해요. 우리는 항상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지역 네트워크 활동으로 연대

하노버시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년 전에 찾아온 여성들을 도울 수 있었던 배경에도 지역사회 타 단체들과의 좋은 네트워크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도 수시로 나눈다.

“단체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있어요.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모임 주기도 달라요. 어떤 네트워크는 한 달에 한번 모이기도 하고, 6주 혹은 8주에 한번 모이기도 하죠. 중요한 점은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더라도 활동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좋은 연대를 맺어가죠.”

20년 전에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마더센터 국제교류의 장에 인도,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면서 새롭고도 다양한 경험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 후 교류를 더 이어가지는 못했다. ‘여러 세대의 집’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전국에 있는 150개의 연관 사업 단체들과 교류를 해야 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해 마더센터와 관련된 국제교류를 이어가지는 어려웠다.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마더센터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센터 설립 때부터 어려움이 없던 순간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떠나기도 했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다른 누군가가 와서 항상 그 역할을 채워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항상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던 이유는 센터에 오면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센터를 들르는 거예요. 물론 센터 활동가들이 심리학이나 어떤 다른 전문적인 전공을 이수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조언을 해줘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경험을 해왔고, 답도 모두 다를 거예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이런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다면 우리 센터는 마더센터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10월 3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①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고용,노동	7/24	2015년 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김수현
지역,사회	7/27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강세진
고용,노동	8/3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②	강세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③	강세진
고용,노동	8/24	2015년 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김수현
경제	8/31	빈곤의 정의와 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최정은
복지	9/11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최정은
주거	9/22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강세진
고용,노동	9/24	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 : 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10/5	휴일무일	이정아
주거	10/19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3) 쇠퇴지역	강세진
고용,노동	10/27	2015년 9월 노동시장 분석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김수현
복지	10/30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③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	배지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